

9월 실국장회의 모두말씀자료(시장님)

'21. 9. 1.(수) 10:00 / 온나라PC영상회의

□ 코로나 4차 대유행 종식을 위한 조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7월 1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반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확진자수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불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방역 현장의 피로도 누적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나하나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야 함.

우선, '인천형 방역'의 기본에 충실해주시기 바람

앞선 세 차례 대유행 발생 때 거리두기 조치와는 달리

이번 4차 대유행 상황에서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실제 시민들의 여름휴가 등으로 이동량을 줄이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음.

인천시 직원과 시민 여러분 모두 '신속한 검사와 격리'라는
인천형 방역의 기본을 되새겨주시고 동참해주시기 바람.

- ▶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찾아 꼭 검사받아 주시기 바람.
- ▶ 건강체육국에서는 환절기 호흡기 질환과 증세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업을 강화해주시기 바람.
- ▶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4인 이상 집합금지 준수, 밀집·밀폐·밀접 등 3밀 환경 회피, 개인위생 관리 철저 등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람.

둘째, 향후 확산세 저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임.

앞으로 두 세달 동안 집중적으로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것임.

일부이기는 하나, 타 지역에서 백신을 잘못 접종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었음.

다시 한 번 접종기관의 백신접종 실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과 교사, 복지업무 종사자, 버스·택시 기사님 등의 접종률도
시민 여러분께 자주 알려드려 궁금증을 해소하고 안심시켜드리면 좋겠음.

셋째,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

정부가 다음 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방침을 세운 만큼

우리 시도 시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조치해야 할 것임.

또한 우리 시가 추가로 핀셋 지원하는 광역버스업체, 여행관광업종 등에 더해 추가 지원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주시기 바람.

특히, 일자리경제본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새로 편성한 70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도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 추석연휴 종합대책 수립에 만전

특히 이번 달 19일부터 시작하는 추석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분수령이 되지 않도록

전 실국에서는 분야별로 추석연휴 종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인천가족공원 폐쇄 등 많은 시민과 관련되는 사항은

조치사항별로 사전에 적극 홍보하여 불편과 혼란을 예방해주시기 바람.

코로나19 방역대책과 더불어

추석대목을 맞는 전통시장상인과 자영업자가 안전하게 영업하실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상인회 등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마스크 벗지 말기, 맛보기 취식 금지, 위생장갑 착용 등

구체적 방역 예방조치들을 마련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람.

□ 국비확보 및 사업 추진 만전 당부

내일 모레(9.3)는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날임.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해온 실국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와 여야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예산안에 반영한 주요사업은,

- ▶ GTX-B 803억원, ▶ 7호선 청라연장 440억원, ▶ GCF 콤플렉스 조성 6억원,
- ▶ 병원선 대체건조 4억원 등이며,
- ▶ 바이오 부생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음.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저도 늘 그래왔듯 가장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 주요 대학과 시정 연계 강화 위한 고민 바람

최근 인하대학교의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학교·학생·동문들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많은 아쉬움과 우려를 표시하였음.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함.

인하대학교는 인천시정의 중요한 산학협력 파트너이자 지역인재를 키우는 요람이니 만큼 더욱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우리시는 인하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과 함께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기획조정실과 일자리경제본부 등이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 시정과 연계하여 추진해온 사업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산학협력,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또한 이번 기회에 관내 주요 대학들이 시정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봄.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주기 바람.

□ 혁신은 끝이 있을 수 없음

지난 주 본청 중앙홀에서 3일간 혁신사례 전시회를 개최하였음. 민선 7기 3년 간의 혁신사례를 망라하여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 시민청원 답변 수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내실 있는 시민청원을 운영하였고,
- ▶ 원문공개율은 전국 10위에서 2위로 올라섰음.

그 밖에도, ▶다면평가와 역량평가를 통한 실적과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 ▶업무정책포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행정혁신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이끌어 냈음.

앞으로도 기존에 추진한 혁신과제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직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특히, 내년 선거가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소극적 행정은 없기를 바람.

이후 토론 시간에 시민들께 더욱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기 바람.

9월 한 달도 우리를 믿고 계신 인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